불교계, 미얀마 모금 활발…현지 전달 '관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로터스월드 · 더프라미스 등
현지 지부를 통해 전달 추진
함께하는세상, 카렌족 지원
아름다운동행 · 불교행동 등
안전한 전달 방법도 모색 중
재한 유학생 생계 지원 시작

미얀마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홍수까지 '3중고'가 겹치면서 미얀마 국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군부를 향한 반발을 대변하는 시민불복종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현재 미얀마에는 의료와 금융 등 필수적인 기능들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곳곳에서 미얀마를 위한 다양한 모연 활동이 진행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금융이 마비된 상황에서 현지 전달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일부 단체의 경우 현지 지부 및 해외구호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당수 모연단체들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전달경로를 모색하는 데 골몰하는 모양새다.

국제구호협력기구인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보)는 미얀마 식량지원을 위한 긴급모금을 진행 중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군부 쿠데타 발생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 UN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340만 명이 굶주림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이에 더프라미스는 이번 모금을 통해 미얀마 빤따노지역의 7개 마을에 1가구당 쌀 50kg 기준으로 총 495가구 주민 2544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돗자리를 제작해 판매하거나 농업과 관련된 일용직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캠페인은 긴급 식량 지원기금 1만 달러(한화 1130만 원 상당)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쿠데타 현지 상황에 따라 사업 수행이 지연될 수 있다. 쌀 1포대 기준 3만 원부터 동참가능하다.

신한은행 100-027-597795, (사)더프라미스



로터스월드와 전국비구니회가 최근 긴급지원에 나선 미얀마 양곤 샨마띠다 사원학교.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현재 사찰 지원 긴급캠페인 '탁발이 어려워진 이웃 불교국가 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남방불교계 사찰 운영의 근본적인 토대인 탁발공양 자체가 불가능해 지면서, 심각한 생계문제에 내몰린 스님들을 위한 캠페인이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 쿠데타와 홍수로 인한 고충이 더욱 심각해, 사찰을 중심으로 산하 고아원 등 인근 지역민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로터스월드는 7월 초 미얀마 양곤의 샨마띠다(San Mya Thida) 사원학교에 1차 지원을 완료했으며, 후원금 모금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모연되는 상황과 연동해 우선순위 사찰들에 대한 지원을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02)725-4277, 농협 301-0059-6339-11 예금주 로터스월드

비영리단체 세상과함께(이사장 유연)도 미얀마긴급구호를 위한 후원금 모연을 진행 중이다. 세상과함께는 7월 15일 "모연금으로 미얀마 카렌족 난민촌에 9000달러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쌀을 포함한 식료품이 난민 7000명이 거주하는 마을에 전달됐다"며 "카렌 난민들의 상황을 계속 살펴 긴급구호로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데타 이후 긴급구호모금을 시작한 세상과함께는 이후 미얀마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안전한 루트를 모색하기 위해 미얀마와 관련된 국내외 NGO단체들과 소통해 왔다. 그 중 미얀마 군부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카렌족(미얀마 소수민족)을 지원하고 있는 KCK(Karen Community Korea), 태국 COERR NGO와 KRC(카렌난민위원회)를 통해 쿠데타 이후 두 배로 증가된 카렌족 난민촌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찾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얀마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와 이에 대항하는 시민저항세력의 전투가 지속되면서 어린이, 노인, 여성들이 밀림 속으로 피난해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은 험한 밀림 속에서 식량과 약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긴급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산소대란'을 겪고 있는 양곤 따봐와 센터에 산소통을 전달하기 위한 모금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농협 301-0192-4967-71, 후원링크 https://bit.ly/3kihJ6F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미얀마에 자비와 평화가 오기를' 제하의 미얀마 민주화 긴급 모금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온정이 모였지만, 현지 전달 경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전달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유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미얀마 유학생을 위한 기초생활장학금을 긴급지원키로 한 것. 이는 재한미얀마유학생들이 쿠데타 여파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본지 기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本紙 1334호 참조) 미얀마 유학생들은 미얀마 국내 정세 악화로 현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국외 외화송금이 제한돼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저원태 재한미얀마학생연합회장은 "미얀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현대불교신문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평화' 발원 모은다

민추본, 10월13일까지 캠페인
신계사 복원 14주년을 앞두고
'일만 이천 서명 운동' 형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발원을 하나로 모은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는 7월 27일부터 금강산관광 재개와 한반도 평화의 발원을 다시 모으는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캠페인' (이하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진〉

캠페인 선포일인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추본은 이날을 시작으로 금강산 신계사 복원 14주년 기념일인 10월 13일까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일환으로 금강산관광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일만 이천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금강산 일만 이천 봉우리마다 불자들의 평화 발원을 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선포식은 생략됐으며,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 현장 캠페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 동참 퍼포먼스를 비롯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준비 중이다. 취합된 서명 명단은 추후 통일부에 전달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그동안 조계종이 대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금강산 불교문화재 보수, 복원사업 등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북한도 개성공단 재개와 더불어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북합의 이행의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게 민추본 측의 설명이다.

특히 조계종은 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에도 매년 금강산 신계사 복원 기념일을 맞아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신계사에서 봉행해 왔다. 그러나 2015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금강산 신계사에서의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는 중단된 상태다.

이에 민추본은 "남북교류와 민족화해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금강산관광을 재조명하고 금강산 및 신계사 순례의 염원을 다시 모으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당국의 과제를 불교계가 견인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캠페인 취지를 전했다.

서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며, 오프라인 서명의 경우 민추본 홈페이지에서 서명용지를 내려 받거나 사무처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

02)720-0531, https://bit.ly/3kIrv24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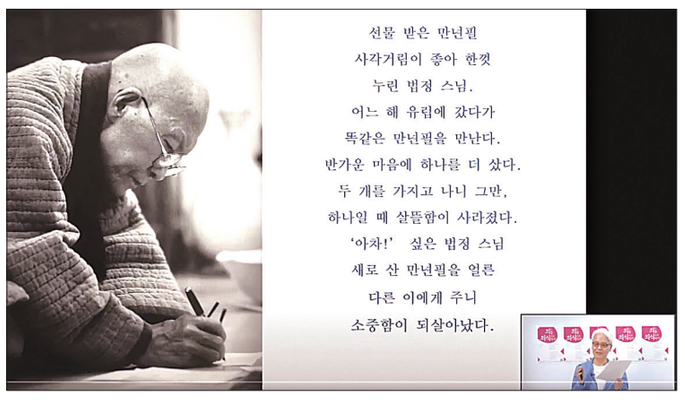
"내가 버린 '옷'도 기후위기에 영향"

7월 27일 종교환경회의서
대화마당 '衣를 의식하라'
'소욕지족의 패션법' 공유

"당신은 옷을 몇 벌이나 갖고 계신가요? 1년이면 옷을 얼마나 버리시나요? 우리가 버린 옷은 어디로 갔을까요?"

계절에 따라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옷은 패션의 완성조건인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에 의식하지 않고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건이다. 아무렇지 않게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지는 이 옷들만 감소해도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

종교환경회의가 7월 27일 '생태위기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사회를 만들어가는 종교인 대화마당'에서 '衣를 의식하라'를 주제로 대화의 장을 열었다.〈사진〉〈법정 스님 숨결〉의 저자인 변택주 작가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플렉스'를 주제로 포문을 열었고, 이어 20대 회사원 최수안 씨가 '내 옷장을 부탁해', 〈불편하게 삽시다〉의 저자 권숙현 작가가 '속부터 미니멀리즘'을 주제로 최소한의 옷으로 패션도 지키고 지구도 살리는 해법을 공유했다.



대화마당은 무소유와 소욕지족의 종교철학으로 어떻게 옷을 사고 입을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종교환경회의는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와 오염, 기후위기 등 총체적인 생태위기 속에서 의류산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며 "옷은 단순하게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실용성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당 주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양의 옷들이 버려지는 원인은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라며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옷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버려지고 소각되는 옷들은 온실가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송지희 기자

신간

현실은 영원이다

"우리는 모두 죽으면 그만일까?
이번 한 생으로 정녕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삶의 영원성을 강렬하게 체득케하는 죽음의 반격!

우리는 죽음이 눈앞에 닥쳐올 때까지 삶에 취해 죽음을 잊고 삽니다. 죽음에 대한 아무런 대비없이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길을 떠납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은 채 살아 갑니다. 육신의 감옥에서 매일 매일 죽음을 잊은 채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원력을 지닌 자들은 현실 가운데 영원을 생각합니다. 허공 가운데, 축복 아닌 것은 없습니다. 고통조차, 죽음조차 축복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케 하려는 허공의 지극하신 배려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만들려는 영원의 선물입니다. 코로나로 떠나가신 많은 영혼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광스님 지음 280쪽, 값 15000원
구입문의 577-5800(교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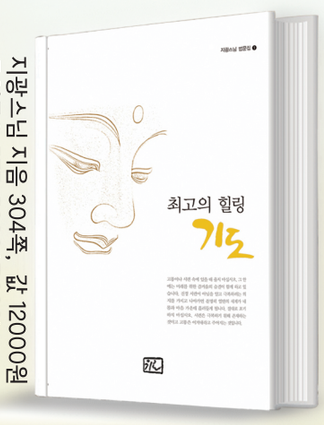


저자 지광스님
현 능인선원장,
서울대학원 철학박사, 한국일보 해직기자
하버드, 프린스턴, 소르본느대 등의 강연,
「법고대통」,「정진」등 다수출간

최고의 힐링, 기도

"고통이나 시련속에 있을 때 울지 마십시오.
미래를 위한 즐거움의 숨결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 마십시오! 시련은 극복을 위한 것입니다



지광스님 지음 304쪽, 값 12000원
구입문의 577-5800(교300)

이 책은 나의 인생 자체입니다. 기도 생활이 그대로 녹아 있으며 기도 체험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처절한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 그를 이겨내려 발버둥 치며 기도했던 나날들! 내 영혼의 뒷모습이 스스로 안쓰러워 많이도 슬펐습니다. 내가 그러했듯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으며 어떠한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도 하나님과 부처님을 만나시기를, 그래서 그분께 온 힘을 다해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는 영원을 믿고 부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도 이 시대 등불의 길을 가려는 숭고한 마음, 존엄한 영혼을 지닌 이들이 어딘가에 꼭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픈 내용이 이 책에 담겨있습니다.

지광스님의 위로TV 유튜브에서 지광스님의 위로 검색하세요